



3면

“모든 것 던져 정권 재창출”

전주매일

2021년 9월 9일 목요일 (음 8월 3일) 제286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데이터 주권, 디지털 민주주의 위해 필요”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은 8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온라인 개최식에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참석해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함께 만드는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주제로 데이터 주권에 대한 가치를 국제 사회와 함께 공유, 확대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포럼에는 월드와이드웹을 고안한 팀 버너스 리 경(團)이 기조연설을 했으며, 에스토니아 탈린, 미국 캘리포니아 등 해외 지방정부도 참여한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경기도가 주최한 포럼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마이데 글로벌이 주관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후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최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데이터는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거대 기술기업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 더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그러나 데이터의 생산 주체이자 주인인 개별 국민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모두의 것을 모두가 누리는 공정한 세상을 꿈꾸며,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권리가 평등하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국제포럼 개최식 참석 데이터 주권 공유·일상 생활 속 실천 가능 방법 모색

게 보장되며, 혜택은 기여한 만큼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는 “이제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며, 앞으로의 혜택은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생산 주체에게도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은 이러한 노력의 시작이며, 정부와 기업, 개인의 역할 및 실천방안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모으고, 나아가 공정한 데이터 세상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하진 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등과 경기도청 상황실에 마련된 현장에 직접 참석해 축사와 함께, 데이터주권 실천 퍼포먼스에 동참했다.

송하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을 경기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했다.

송 회장은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뤘다면, 데이터 주권은 사이버 세상 나아가 메타버스 공간

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제포럼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국민 개개인이 만드는 데이터의 주인은 국민 개개인이며,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삭제하고 가공할 수 있는 1차적 권한도 주권자 개개인에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회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국민 모두가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17개 시·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관리와 통제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활용처, 활용범위 등에 대한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 또는 ‘데이터 권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최근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전락, 마이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 주체인 개인이 스스로 본인의 데이터를 통제·활용하는 데이터 주권 찾기(MyData)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8일 경기도청에서 ‘함께 만드는 공정한 데이터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온라인 개최식에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데이터 주권 실천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일상·민생회복의 기회로’

도, 추석 명절 종합대책 4개 분야·16개 과제 추진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 모두가 철저한 방역 속에 편안한 연휴를 보내고, 명절이 일상과 민생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추석기간 코로나19 추가확산을 차단하면서도, 도민이 명절을 풍성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방역의료, ▲나눔확산, ▲민생경제, ▲상황대응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추석 기간 중 방역에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그동안 누적된 도민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명절기간 동안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생 지원에 집중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걱정 없는 안전한 명절 지원

우선 연휴 기간동안 소규모 고향방문을 유도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소 인원의 고향방문과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전모임 허용 기준(8인까지) 등 연휴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민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명절 기간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는 28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워킹맘 적발 시 즉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전통시장 78개소에 대해 지난 6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오는 13일부터는 터미널, 철도역 등 58개 주요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승·하차객 동선 분리, 열화상 카메라 운영상황 등을 시·군과 합동점검 한다.

연휴기간 요양시설은 방문편의를 허용하면서도, 접촉회회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등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또, 26개 봉안시설에서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해 이용객의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체육관광시설은 이용객 인원을 제한해 운영한다.

연휴기간 선별진료소 27개소, 감염병 예방센터 5개소, 생활치료센터



8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추석 명절 종합대책’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조봉업 행정부지사(사진 가운데)가 발표를 하고 있다.

방역의료 - 최소인원 고향방문·백신접종 총력

나눔확산 - 소외계층 돌봄시책 추진 등

민생경제 - 전통시장 온라인상품권 할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상황대응 - 195명 규모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

2개소를 상시 가동하고, 현재 65.1%인 백신 1차 접종률도 추석 전까지 70% 이상의 도민이 맞을 수 있도록 미접종자의 백신접종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취약계층 돌이보는 포근한 명절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8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신청에 이어, 13일부터 시작된 오프라인 신청도 세밀하게 준비해 도민이 추석 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각종 세제지원 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저소득세대와 사회복지시설에 총 3억27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취약계층 생산품의 우선구매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외계층의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지원하기 위해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도내 42개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명절음식나눔 등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활력있는 지역경제 풍성한 명절 지원

전통시장에서 안전하게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오는 17일까지 2주간 도와 시·군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자율 방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특별한인 판매(개인 10%, 단체 5%), 도내 지역사랑 상품권 추석전에 집중발행 판매, 주요 수산물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하는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가 되살아나게 할 계획이다.

▲빈틈없는 상황대비 편안한 명절 지원

연휴기간 각종 사건사고, 생활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연인원 195명 규모의 명절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이와 별도로 감염병 대응상황실을 운영해 연휴기간 확진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민원의 기상특보상황에 대응한다.

또한, 도내 전 소방관서에서는 추석연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귀성객의 사고발생과 각종 생활민원에 대비해 119구급대도 긴급대응 태세를 구축한다.

도는 최소인원 고향방문과 거리두기 기준, 방역 수칙에 대한 메시지를 전북도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전광판 등 각종 홍보채널을 통해 지속 홍보하고, 각종 민생지원 시책에 대해서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코로나 4차 유행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석명절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도민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차분한 연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